

Propylene 가격급등 700달러 돌파

FOB Korea 690-710달러 형성 ... PP 수요강세에 따른 수급타이트로

Propylene 가격이 1월30일 FOB Korea 690-710달러로 40달러 급등했다.

아시아 프로필렌 시장은 PP 수요증가로 PP 생산기업들이 가동률을 상승시킴으로써 원료인 프로필렌 수요가 증가해 수급타이트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PP 가격은 프로필렌 가격만큼 상승하지 않았으며 이에 최근 동남아의 여러 PP생산기업들이 플랜트 가동률을 낮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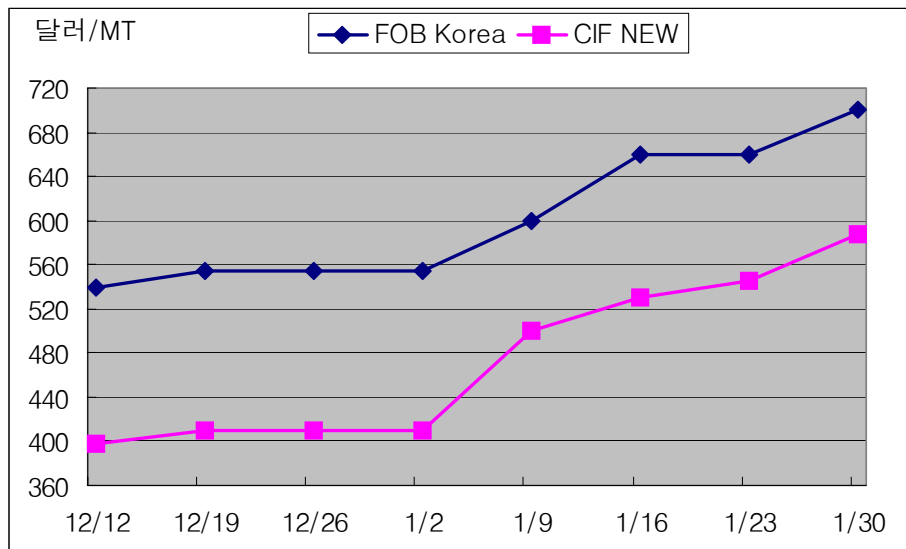
PP Injection 공급가격은 CFR Asia 톤당 860-870달러로 상승한 반면, 구매기업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에서는 최근 C3 Spot 공급물량이 FOB 톤당 690-700달러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판매의사가 가격은 700달러 이상을 형성했다. 또 무역상들은 중국 및 타이완에 2월 거래물량 1500톤을 CFR 톤당 730달러 이상에 공급했다.

중국 구매기업들은 춘절연휴가 끝나 시장에 다시 돌아왔으나 아직 활발한 참여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구매의사가 가격은 CFR China 톤당 700달러 이하에 머물렀다.

타이완 구매기업들도 중국의 구매의사가 가격을 반영했으며 별다른 거래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한 공급기업이 동남아에 CFR 톤당 760달러 이상을 제시했으나 동남아 구매기업들은 PP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거래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Propylene 가격추이



한편, 유럽 프로필렌 시장도 수급타이트로 Spot 가격이 꾸준한 강세를 나타내 1월30일 CIF NWE 톤당 580-595달러로 43달러 급등했으며 1/4분기 계약가격은 FD NWE 톤당 475유로를 형성했다.

<Chemical Journal 2004/02/05>